



변유정 (여·당시 3세) 1997.4.5 실종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할아버지 집 앞



김하은 (여·당시 8세) 2001.6.1 실종 김진군 서성리 중앙초교 앞 학교길



김성주 (여·당시 7세) 2000.6.15 실종 강진군 동성리 강진동초교 앞 학교길



박상미 (여·당시 6세) 1995.7.11 실종 나주시 노안면 천주교 아영장



양은실 (여·당시 14세) 2008.1.19 실종 영광군 영광읍 주변



배햇님 (여·당시 12세) 2004.4.18 실종 실종 장소 미상

#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니

## 광주·전남 경찰청, 실종 어린이 찾기 대대적 수색

‘사라진 아이들을 가족 품으로.’

가족 곁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진 실종 아동에 대해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3월을 실종 아동 예방 및 집중 찾기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실종 아동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및 민·관과 함께 대대적인 수색작업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남지방청이 관리하고 있는 실종 아동은 모두 10명. 경찰은 이 가운데 199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15년간 실종된 후 발견되지 않은 변유정(당시 3세)양 등 5명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다.

변양은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할아버지(당시 72세) 집에 거주하던 중 지난 1997년 4월 5일 오후 2시30분~4시 30분 사이 할아버지가 산에 일을 하러 간 사이 행방불명됐다. 김성주(당시 8세), 김하은(당시 8세)양은 각각 2000년과 2001년 강진군 동성리 강진 동초등학교 앞과 서성리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길 귀가 도중 행방불명됐다. 1년 사이에 같은

지역에서 2명의 여자 어린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15~20분 거리지만 7, 8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박상미(당시 6세)양은 지난 1995년 7월11일 나주시 노안면 천주교 아영장에서 아영중 새벽에 사라졌고, 양은실(당시 14세)양은 가장 최근에 실종된 아동이다. 올해 1월19일 영광군 영광읍 집 주변에서 실종됐다.

경찰은 우선 이들 5명에 대한 실종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서 15~20분 거리지만 7, 8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 각 경찰서별로 민·관 합동수색반을 편성하고 지자체 관련 공무원·시민단체·실종아동 가족들과 함께 전남지역 195개 보호시설 및 3천545개 사찰과 암자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어린이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실종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3~5월을 맞아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전남지역은 이들 5명 이외에 2003년과 2004년 행방불명된 ▲배햇님(당시 12세) ▲임인순(당시 14세) ▲배현진(당시 13세)양 등이 있으며, 지난 1990년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배갑 마을에서 아버지가 잠든 사이 사라진 전정일(당시 3세)군도 아직까지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아이는 이동훈(당시 4세)군으로, 1983년 11월20일 목포시 산정 3동 일신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없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취직 유혹에...

#### 30명 속여 수익 가로채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국내 대기업 자동차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익 원을 가로챈 류모(43·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06년 11월 광주 서구 광천동 모 자동차 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회사 인력관리 담당 이사를 사칭, 강모(여·54)씨에게 접근해 강씨의 아들을 생산직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1천만원씩을 받는 등 지금까지 2억7천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류씨는 부동산 투기업체를 운영하다 경찰에 지명수배되자 자신의 선배가 운영하는 자동차 회사 비정규직 인력 공급업체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도둑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나원침 (7448) 김장동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 ‘공채 잡음’ 전남대 교수 5명 직위해제

## 특정인 과락 점수 등 부적절 심사

전남대는 교수 공채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정치외교학과 P, K, O 교수 등 3명과 여성캠퍼스 공대 J, L 교수 등 국립대교수 5명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남대 정외과 교수 3명은 지난해 7월 실시된 교수 공채과정에서 심사

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인에게 과락점을 주는 등 부적절한 심사를 했다. 교육공무원법 상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되고, 이들은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되어 있다. 이명규 교무부처장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사안이라 정확한 직위해제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세 교수가 이번 학기에 말을 예정이던 대부분 강의들은 다른 교수들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1개씩 총 2개의 강의는 폐강돼 학생들의 피해

가 예상된다. 정치외교학과는 지난해 7월 ‘지역연구’ 분야의 교수를 공채했지만 심사위원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한 3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다”며 합격자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탈락자들이 “일부 심사위원들이 전공심화 지식 외에 외국어 능력, 도덕성 등의 기준을 내세워 전공 세미나 발표시간 10점 만점에서 3점 이하의 점수를 줘 모두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끝에 재심이 진행됐고, 이전 심사에서의 탈락한 3명 중 1명이 교수로 채용됐다.

또 전남대 여성캠퍼스 공대 교수 2명도 교수 공채과정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박상규 공대 학장은 “심사 과정에서 논문에 대한 평가가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는 생각에 학교

측에 교수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교수평의회에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빌딩 화재 1명 사망

3일 새벽 1시 10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G빌딩 1층 S약국에서 불이 나 4층에 있던 신모(42·광주시 남구 진월동)씨가 탈출하다 추락해 숨지 같은 층에 있던 서모(여·27·진월동)씨 등 19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 불로 1층 약국 70㎡가 타는 등 2억2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불법 시위 참가자 즉심 방침 논란

## 경찰청 지시에 “편의주의 범집행” 우려 높아

이명박 정부가 범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불법시위 참가자와 기초질서 위반 사범 등에 대해 ‘훈방’ 조치를 활용하지 않고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는 단언하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여청수 경찰청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직후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 모인 고위간부들에게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경찰청 등 일선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단순 참가자와 주취자 등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해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수사, 경비, 교통, 생활안전 등 기능별로 추진 중이다.

경찰은 특히 집회·시위에서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불법

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자를 검거해 이 중 상당수를 즉심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간이재판’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 비율을 늘릴 경우 편의주의적 범집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참여자 21 오미덕 소장은 “경찰의 즉심활용은 과거 군사정권시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안사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표현을 억압하기보다는 융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 휴대전화 찾으러 왔다 범행 댈미

○...절도 행각 후 잃어버린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사건 현장에 다시 온 열거기(?) 날치기범이 경찰에 댈미.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장모(30)씨는 3일 새벽 0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삼암동 B롯데가 앞에서 귀가하던 김모(여·44·광산구 월계동)씨의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는 것.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 강력반 형사 두 명은 수사를 벌이던 중 날치기범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장씨가 사건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 50여m를 추격한 끝에 검거.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휴대전화는 현장에 놓고 온 것 같아 찾기 위해 되돌아 갔었다”며 “집에서 가솔한 후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해 이런 짓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황산**

무안 ↔ 황주 직항

광주/전남, 지역행사 판매  
문의전화: 02) 226-6070

광주광역시 서구·동구·남구·북구 4구	광주광역시 서구·동구·남구·북구 1구
₩420,000 - 420,000 ₩759,000 - 420,000	₩599,000 - 420,000 ₩649,000 - 420,000
광주광역시 서구 4구	광주·오전·이우·동명 5구
₩290,000 - 420,000 ₩390,000 - 420,000	₩578,000 - 420,000 ₩628,000 - 590,000
광주·서해·소주 4구	광주광역시 서구·동구·남구·북구 5구
₩499,000 - 420,000 ₩549,000 - 420,000	₩728,000 - 420,000 ₩778,000 - 420,000